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소, 靑에 지원요청”

〈고형폐기물〉

강인규 나주시장
“갈등·반목에 도시발전 더뎠다
폐쇄비용 주체 못해 새 국면”

전남 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해묵은 갈등 해결에 국가 최고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나서 줄지 주목되고 있다.

나주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빛가람전망대 방문 당시 강인규 시장이 나주혁신도시의 최대 현안인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께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로 생겨난 갈등과 반목이 혁신도시와 지역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혁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현안 문제와 관련된 설명 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 나주 빛가람 전망대를 방문해 이주민 현황 및 지원대책 관련 브리핑을 듣고 이주민 명패를 관람하고 있다. /뉴스

료와 건의문도 함께 전달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3일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직접 만나 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건의문을 전달하고, 2년째 치달고 있는 장기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가 힘써줄 것을 재차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시장은 “정무수석의 역할은 광범위하지만 특히 국민통합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나주 SRF 갈등과 관련해 청와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 SRF 갈등은 지난달 27일 열린 10차 ‘민관협력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3개월 시험가동+주민수용성 조사 실시’라는 큰 틀의 잠정합의안까지 도출해 냈지만 ‘SRF 열병합발전 시설 폐쇄 시 손실보존(매몰)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지 못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오는 22일 11차 거버넌스 회의를 앞두고 ‘SRF 가동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한

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물밑에서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얽혀 있는 ‘손실보존 주체’를 단기간에 확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대위·전남도·나주시는 단계별로 큰 틀에서 먼저 1단계로 ‘3개월 시험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성조사 실시’와 ‘주민 직접투표가 포함된 수용성 조사’에 대해 합의문을 작성한 후 2단계로 ‘손실보존비용 처리’ 부분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발전소 운영 건설·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거버넌스에서 합의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존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손실보존비용 부담 안건은 거버넌스가 시작되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주장해 온 사안”이라며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결정돼야 최종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 유해성이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시설 준공후 2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 사업비 2800여억원(SRF 시설 1600억원+LNG 시설 1200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 2017년 12월에 준공했다.

이 발전소는 하루 466t의 SRF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열공급 전용 LNG 첨두부하보일러 2기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전체 사용 연료(SRF)의 97%가 광주 등 타 지역 생활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나주지역 쓰레기로 만든 연료는 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반감이 크다.

또 준공 3개월 전에 이뤄진 시험가동 때 배출 기준치 이내이지만 인체에 유해한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며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 사용연료를 ‘LNG 100%’로 전환할 것과 ‘타 지역 쓰레기 연료 반입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인천 서구, 대기방지시설 교체 40억 지원

인천 서구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약 40억 원의 예산을 방지시설 개선비용으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서구에는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배출업소가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구는 판단하고 있다.

구는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2020년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중소기업 사업장의 시설 개선비용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은 1개 사업장에 1개 방지시설을 원칙으로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된다. /인천=박종규 기자 jkpark@

군산시, 장기부실채권 50억 빚탕감

군산시는 신협중앙회 전북지부와 군산사랑 희망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협이 보유한 장기부실채권 49억9000만원의 빚탕감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가 올해 4월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시책인 ‘군산사랑 희망 프로젝트’의 첫 결실을 맺은 것.

이날 빚탕감은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와 관내 10개 지역신협에서 기부한 채권으로 이루어졌으며 탕감금액은 약 49억 9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채무 원금은 662만원, 이자는 985만원에 이른다.

이날 탕감을 통해 그동안 빚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돼 금융 거래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 받았던 303명의 시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군산=봉채영 기자

장성군, 시도대항 조정대회 20일 개최

3일간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12년연속 전국규모 대회 유치

제 35회 대통령기 시도대항 조정대회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로써 장성군은 2008년 전국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무려 12년 연속 전국 규모의 조정대회를 유치하며, 수상 스포츠의 메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장성읍·북일면·북이면·북하면에 걸쳐있는 장성호는 1976년 영산강 유역 농업종합개발 1단계 사업을 통해 준공됐다. 유효 저수량 1억t, 유역 면적 1만 2000여 ha에 이를 정도로 웅장해 ‘내륙의 바다’라 불린다.

장성호의 맑은 물도 수상 스포츠 메카로 자리 잡은 요인 중 하나다. 장성군청 직장조정팀 고광선 감독은 “수질이 좋지 못한 곳에서 훈련이나 시합을 하다 보면 노(오어, oar)에 수초 등의



장성호 나무데크길과 어우러진 조정경기장.

이물질이 끼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성호의 깨끗한 수질은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한조정협회가 주최하고 장성군체육회가 주관하는 제35회 대통령기 시도대항 조정대회에는 전국 40여 개 팀 400여 명의 남녀 선수가 참가한다. 일반부와 대학 일반부, 고등부, 중등부 등 8개 부문에 싱글스컬, 더블스컬, 타수 없는 페어, 타수 없는 포어, 에이트

등 3개 세부 종목으로 나뉘어 치러진다.

장성군에서는 군청 소속 일반부 주찬영, 최수진 선수를 비롯해 12명의 관내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싱글스컬과 더블스컬 부문에 출전한다. 장성군 팀 주장을 맡고 있는 주찬영 선수는 “우리군이 출전하는 싱글스컬, 더블스컬 부문에서의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7월 17일 (수) 음력 : 6월 15일

수도권 날씨 32~2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20/31, 동두천 21/31, 가평 20/32, 파주 20/31, 서울 23/32, 양평 21/32, 인천 23/29, 수원 23/31, 용인 23/31, 평택 21/32, 백령도 20/2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광주학생 2만여명 세계수영대회 관람

2만 명에 가까운 광주 학생들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체험학습으로 관람한다.

학생들은 세계적 행사를 눈으로 직접 보며 국제적 시각과 함께 광주정신과 도전정신을 함께 배우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다”고 말하며 스포츠 산업분야에 대한 꿈을 드러냈다.

대회 기간 동안 광주에선 89개교 1만 8336명, 전남에선 53개교 4528명이 수영대회장을 관람을 예약했다.

16일에는 광주 학생 4959명이 대거

경기장을 찾아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 경기를 관람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희국 교육감은 이날 남부대학교 수구장에서 열린 2019 광주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한국·러시아’의 여자 수구 경기를 교육청 직원 100여 명, 전 자공업고등학교와 첨단중학교 등 학생·교직원 1200여 명과 함께 관람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28일까지 광주에서 펼쳐지는 다이빙 등 모든 종목에 대해 학생 현장체험학습용 경기관람 입장권을 예매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전남 신안군 농수산물판매유통과 신설

전남 신안군은 우수한 농수산물을 생산했으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판매유통과’를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이번 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농수산물판매유통과’는 전남 공무원 7명이 생산자, 유통업체와 함께 직접 판촉 활동을 펼친다.

이들은 수도권과 부산, 광주 등 전국을 대상으로 향우회, 신안출신 목회자, 군부대, 대형 식품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등을 상대로 판촉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무안=양수영 기자 ysn6313@